

고양 YWCA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마음을 나누는 목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기획기사
평화를 보다

활동보고
'4.27 DMZ민(民) + 평화손잡기 -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고양 YWCA

목차

- 03 **마음을 나누는 묵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김경환**
- 04 **기획기사** 고양YWCA 30주년 특집 두 번째 (1998년~2007년)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06 **기획기사** '평화를 보다' | **최향숙**
- 08 **활동보고** '4.27 DMZ민(民) + 평화손잡기'
-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 | **남궁혜경**
- 09 **활동보고** 비전스쿨로 모이세요 | **김혜경**
- 10 **활동보고** 한 두레(가사도우미)자치회 7년을 돌아보며 | **최후분**
- 11 **지역연대활동**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산황산 | **조정**
- 12 **신앙칼럼**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이야기 | **강희수**
- 14 **부속시설이야기**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다시 돌아온 나의 제2의 고향 | **문정인**
- 15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 **김영은**
- 16 **문화공간** 김주택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 **진의연**
- 17 **고양YWCA NEWS**
- 20 **2018년 2월 ~ 4월 후원자 명단**
- 22 **돌봄과 살림**
- 23 **고양YWCA 생활방사능 라돈 측정기 '라돈아이' 대여서비스**
고양YWCA합창단 신입 단원모집
- 24 **원개솔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호 2019.06~2019.08

2019년 5월 31일 발행

발행 고양YWCA

발행인 윤정애 | 편집인 이경애

홍보출판위원회 한수아 · 황혜숙 · 최향숙 · 윤선영

편집 박선영 · 남궁혜경

발행처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업로 134
시대프라자 5F

전화 031)919-4040 | 팩스 031)913-4042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새로 이사 온 동네
분식집 나들이를 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뭔가를 열심히 씻으시던
아주머니께서 마치 장모님 사위 맞아주시듯
환한 미소로 맞아주십니다.
두 어 줄의 김밥을 맡으시는 동안
아주머니의 김밥 자량이 시작되십니다.
사람이 먹는 건데
500원 1000원 좀 더 받더라도
자신은 건강한 재료만 쓴다고
그래서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보고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신다고
메뉴 중에는 <짜김밥>란 메뉴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식사가 힘드신 분들
그래도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김밥인데
동네 암환자 가정에서 종종 이용하십니다.
그 잠깐의 시간동안 사장님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극진한 친절을 베푸시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풀어내십니다.
웬지 모를 자부심과 자긍심이 두둑하게 느껴집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스친 한쪽 벽에는
이런 저런 동네 업소 광고지가 붙어있습니다.

그 작은 가게에 뭘 홍보지가 이렇게도 많나
싫은 눈빛으로 바라보니
아주머니 웃으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유대 랍비의 말에 의하면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자신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 했는데
소박한 인간미를 지니신 아주머니
어느 대형마트 사장님들보다
훨씬 더 성스럽게 보이더군요.

최근 한 정치인이 불교 사찰에 가서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해 말이 많습디다.
남의 집에 갔는데 어른에게 인사도 안하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들 식의 인사를 거절한 셈입니다.
신념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타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천박하게 나타나면
그 신념 또한 천박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김경환

동녘교회 담임목사



고양YWCA 30주년 특집 두 번째 (1998년~2007년)

고양YWCA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되짚어 보고자 30주년 특집 기사를 3회에 걸쳐 소식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고양YWCA 창립예배를 드리며 다짐했던 선배들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를 희망합니다.

※ 본 내용은 고양YWCA 20년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준회원YWCA 승격

고양YWCA는 창립 초기 클럽회원YWCA로 인준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하였다. 창립 후 10년 만인 1999년 2월 3일 한국YWCA연합회로부터 준회원의 자격을 인준 받았다. 준회원 인준 일년전인 1998년 현재의 주엽동 시대프라자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회원의 증가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다.

Y-틴 조직

1998년부터 방학마다 청소년 지역사랑 봉사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놀이마당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청소년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래상담원 교육 및 사랑의 우체국, 학교 CA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Y-틴을 조직하고, 2000년 4월15일에는 무원중학교, 22일에는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Y-틴 인준식을 가졌다.

여성 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자녀들의 환경교육에 관심이 높은 엄마들을 지역 환경운동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개발하고자 2002년 '여성 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숲과 자연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고양 숲사랑'이라는 소그룹을 구성하면서 고양시의 환경지킴이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2003년

자연생태연구소 마당 류창희 소장 지도아래 풀과 나무 등의 그림을 직접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물로 정발산 안내서 '와! 신난다 정발산'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활동 결과 2004년부터 고양YWCA와 연계하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정발산 숲해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EM을 통한 환경교육

고양시의 하천, 땅, 공기를 살리기 위한 EM확산 운동을 2004년부터 진행하였다. 교회나 기관 등을 방문하여 EM활용법과 사례들을 교육하고, 전주대 EM연구소를 견학하는 등 EM을 이용한 환경운동을 고양시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고양시의 주요 하천에 EM흡공 던지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하천이 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양YWCA합창단 창단 및 다양한 회원 활동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써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고양YWCA여성합창단을 2000년 3월 창단하였다.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고양YWCA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00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교육, 초고층 아파트 건설 반대운동, 2000년 8월부터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사

랑업소 선정, 명함형 불법광고전단 수거, 야간 계도활동,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여성의 삶 만들기' '준비된 노후가 아름답다'를 진행하며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보람되고 자신 있는 삶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전체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공동체 육아운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여성 지도력 및 인권향상

고양YWCA는 1999년 12월 29일 고양시 최초로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소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이 당당한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는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면서 2001년 3월에는 여성의 쉼터, 4월에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개소하였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과 중장년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그동안 여성운동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었다. 건강한 가족 기능을 활성화하고,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에 개소하였고, 그해 12월 친환경농산물 매장 생명살림터를 개장하였다.

고양YWCA는 조직의 활성화로 인한 지도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회원들 중에서 자원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여 민주화 시대에 여성운동을 이끌어갈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1996년 복지관위원회
- 2000년 사회문제위원회
- 2001년 청소년위원회, 여성능력개발위원회
- 2002년 인권사업위원회
- 2003년 회원개발위원회, 어린이집위원회
- 2005년 회관마련위원회
- 2006년 홍보출판소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건강가정위원회
- 2007년 인사 및 지도력위원회, 재정위원회



이사 위원 직원 연수



정책협의회



노후준비 프로그램 회원들



지구사랑 시민축제 Y틴 활동



평화를 보다

‘평화를 품은 집’에 다녀와서

최향숙 중점운동위원



평화를 품은집 도서관(필자 오른쪽에서 두번째)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늘 인사한다. 하지만 그 평화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렵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 나라사람들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 만한 한반도를 걱정하지만 정작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 불감증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평화롭다기 보다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없거나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렇다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세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거리를 지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평화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은 아닐까..

평화에 대해 늘 생각하지만 참 어렵다.

그 어려운 평화를 쉽게 다가오게 만드는 곳이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곳은 분단의 최전선 비무장지대 바로 밑 파주시 파평면 산기슭에 있다. 바로 ‘평화를 품은 집’이다.

‘평화를 품은 집’은 산에 둘러싸여 저절로 편안한 느낌이 든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바람결에 실려오는 꽃향기, 숲향기... 저절로 눈을 감게 만드는 곳이다. 앞산과 뒷산을 바라보면 눈이 시원해지고 가슴도 뽕 뚫린다.

‘평화를 품은 집’에 들어서면 이래로 ‘평화 도서관’이 펼쳐

져 있다. 평화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책들이 다양한 주제로 분류되어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하게 만든다. 전쟁과 평화, 자연과 환경, 인권과 권리, 왕따와 다문화 등등 명확한 주제들로 다가 온다.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에는 대량 학살 사건과 그 자료들이 있다. 생경하기만 한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는 인종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를 합친 것으로 ‘집단학살’을 뜻한다. 이는 특정 집단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로 보통 종교나 인종, 이념 등의 대립으로 발생한다. 1944년 법률학자인 라파엘 렘킨(Rafael Lemkin)이 국제법에서 집단 학살을 범죄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제노사이드를 공식적으로 처음 범죄로 인정한 것은 1945년 2차 대전 직후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전범을 기소할 때 였다고 한다. 이후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이 승인됐으며 특정 국가·종족·인종 또는 종교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사를 갖고 자행하는 행동을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정의하였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평화를 품은집의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은 근대 100년



세계의 학살지역.

동안 일어난 세계의 제노사이드 사건 가운데에서도 희생자 수가 30만 명이 넘고 특정 종족이나 구성원의 멸살이 최종 목표였던 아르메니아, 난징, 홀로코스트, 캄보디아 킬링필드, 르완다 5개 지역의 대학살 사건에 관해 해당 지역의 지도, 사건의 개요, 사진, 증언, 동영상, 도서자료를 각 나라별로 구분하여 전시하였고, 나머지 학살 지역 중 콩고, 수단, 카틴, 대만 등지에서 일어나 학살 사건도 시간의 사진과 개요를 묶어 함께 전시하였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곳에 ‘제노사이드’라니... 한 집단을 절멸 시키는 살인의 현장을 먼저 보게 만들다니... ‘왜 그럴까?’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현재 평화롭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노사이드역사관에 붙어 있는 ‘제노사이드 피라미드 이론’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제노사이드역사관에서 설명을 듣고있다.

폭력은 아주 작은데서 시작된다. 제노사이드를 벌인 민족 갈등은 큰 사건이나 참을 수 없을 만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키워져서 혐오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분노와 살인행위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장면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폭력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와 논의를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 변함 없는 노력과 일상성을 가진 토론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는다. 자연을 통해 나무와 풀이 다르고, 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화를 품은 집’에는 다락갤러리가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다락갤러리에는 낮은 자리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길 원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담은 상설 전시 공간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2013년 기획해서 ‘다종이인형으로 만나는 위안부’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우리 눈 앞에서 가라앉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리는 전시도 있다. 아픈 역사의 현장들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평화를 품은 집’을 통해 또 한 번 보고 배운다. 이제 우리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다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로워지기를,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바란다. 

4.27 DMZ민(民) + 평화손잡기 -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


남궁혜경
국장



고양YWCA는 남북정상회담1주년인 4월 27일(토) 14시 27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4.27 ‘DMZ민(民) + 평화손잡기’에 참여하였다.

DMZ 평화인간띠잇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DMZ민(民) + 평화손잡기’는 경기도 216km와 강원도 284km 총 500km의 DMZ평화누리길(한강하구 중립수역인 강화에서 김포~고양~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까지) 10개 접경지역에 포스트를 마련하여 50만명의 시민이 손을 잡고 ‘평화의 인간띠’로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릴레이 운동이

다. 본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인간띠’로 덮어 세계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이념의 분단지역에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의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던 평화손잡기행사에 고양YWCA 이사, 위원, 직원 30여명이 참여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배를 드린 후, 이동하여 오후 14시 27분에 ‘평화손잡기’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였고, ‘4.27 DMZ 민(民)+평화손잡기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며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길 기원하였다. 



꿈찾기 비전스쿨로 모이세요

김혜경
아동비전스쿨교사



아동비전스쿨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력 프로그램 등 벌써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아동비전지원서비스(이하 '비전스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식도 많이 변화하여, 지금의 비전스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셋째 토요일에는 비전형성의 내용으로 3시간씩, 네 번째 토요일에는 체험활동으로 8시간씩 매월 1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형식의 초등학생 토요일 체험학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1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혜받아가며 많은 추억과 행복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YWCA에서 진행하는 6시간의 활동은 매월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이해하기, 나의 주변 살피기, Self Leadership, 자기주도력, 자존감 향상, 진로 탐색, 직업의 적성 파악, 직업관 형성, 직업체험 진로지도, 나만의 포트폴리오 등을 주제로 비전형성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며, 매월 8시간씩 진행되는 현장 체험활동은 창덕궁 후원, 인사동, 삼암동 노을공원, 에너지드림센터, 선유도공원, 어울림빙상장, MBC월드, 영화박물관, 누리꿈스퀘어, 문화비축기지, 헤이리 예술마을, 인천국제공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자니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체육관 고양오리온스 농구 응원, 댄싱플라워원예체험 등 흥미로운 체험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내프로그램 중에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분야를 찾아보기 위한 다양한 만들기 시간,

그리고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맛있는 간식을 레시피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보는 요리시간 등은 아이들의 집에서의 생활과도 연결되어져 부모님들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은 거의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길게, 더 오래,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

도 초등 6년 중에 1년만 이용할 수 있는 1년제 계약을 하는 서비스라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큰아이가 참여했으면 그 뒤의 둘째나 셋째 아이는 당연하게도 참여하게 되는 묘한 매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이 글을 정리하고 있자니 비전스쿨을 지나간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중 A는 첫 시간부터 '아이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서 기분 나빠서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정신병원 사회복지사의 경험으로 다행히도 A와 아이들 모두 곧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이후 즐겁게 비전스쿨을 참여하는 물론이고 여동생까지도 함께 하였으며, 수료하고 나서도 가끔씩 토요일이면 "혜경쌤~ 오늘은 어디로 가셨어요?^^" 안부전화를 해오기도 한다. 최근에 함께 하고 있는 B(4학년)는 "하늘공원은 가봤지만 건너편에 노을공원은 처음 와봐요, 맹꽁이 전기차 처음 타봐요, 공원에서 도시락 처음 먹어봐요, 공원에서 누에고치 관찰이랑 보물찾기 처음 해봐요, 비전스쿨 하나까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요"라고 하여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여러 아이들로부터 "혜경쌤이랑 비전스쿨 할 때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



아이들과 비전스쿨과의 만남이 그 아이들의 일생에 행복한 추억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 추억으로 즐거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고양YWCA가 생명 살림과 돌봄의 작은 구석을 채워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

애들아, 보고시프당~~~



한 두레(가사도우미)자치회 7년을 돌아보며...

최후분

한 두레 자치회 회장



한두레자치회 회원들과(필자 가운데)


해마다 싱그러운 5월이 되면 고양YWCA 한 두레 자치회 총회를 준비 하느라 분주하다. 7년 전 YWCA에서 총괄 관리 해 주던 일들이 자치회로 분류되면서 총칙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고 그 임원들이 회원 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현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월례회에서는 가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친목도모를 위한 문화기행,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쁘게 자치회 활동을 하며 한 달 한 달을 지낸지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가정이었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이가 초등학교생이었는데 내 아이처럼 음식을 챙겨주고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가족처럼 지낸지 10년이 되어 어엿하게 자란 아이를 보며 가사도우미가

단순히 청소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사도우미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림자 같고 우렁 각시 같은 직업인 것 같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 돌아와서 안식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게 되는 직업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회원들이 10년 넘게 일을 하며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현재 최장기 가사도우미 경력 22년차에서 부터 지난달 새로 시작한 약 70여명의 회원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돌봄 나눔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며 각 가정의 가사 관리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한두레 자치회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산황산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훼손되고 있는 산황산

이 도시에서 나는 인디언 노파처럼,
산소가 녹아드는 수면을 뺄끔거리는 물고기처럼,
작은 숲 옆을 서성이며 살고 있다.
생명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숲을 지키려
고 싸워왔다.
그 그룹을 G1이라 하자. Green의 G.

상대편에는 이 산을 사유화해서 돈 벌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뇌
물을 받고 적법한 행정을 진행해준 사람들, 그 유착을 눈감아준
유력자들, 드러나면 허물인 그것을 무마해줘야하는 대표선수가
있다. 금권 유착 팀이다.
그 그룹을 G2라 하자. 골드(Gold)의 G.

G1 - 8만평 자연 녹지- G2

이 구조는 한 우주와 같다.

G1 행성의 욕망은 숲 보전이고 G2 행성의 욕망은 돈벌이와 권
력 유지다.

두 행성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행성을 도는 먼지처럼 산재해 있
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친화력, 이해관계, 흡인구조, 이해 변이
에 따라 원근 거리를 바꾸며 두 행성 주변에 만다라를 그리고 있
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난 인문학 공부가 될 것 같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예정 부지

유사 이래 G2그룹이 구사하는 욕망 획득의 방식은 유구하고 효
력이 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이재이와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다.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에 편승해 산황산 가운데로 4차선 도로를
계획한 것이 바로 권력을 이용한 허물 덮기의 전형적 예다.
신도시 계획 발표 며칠 후 시장 측에서 연락이 왔다.
"골프장 못 하게 도로가 나니까 이제 텐트 치우셔야죠."

숲을 지키기 위해 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돗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골프장 대신 숲을 가꾸라는 것이다.
공기를 지키기 위해 골프장 폐지하라는 것이다.
뇌물 받고 돈벌이 보장하는 정치가, 공무원들로 인해 못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에 골프장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산을 동강내고 난개발 유도하는 도로, 애초 계획대로 평지로 옮
겨야 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 골프장 증설
권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골프장 직권취소할 법과 지침은 엄
연히 존재하고, 사업자는 며칠 전에 회생도 기각되어 청산 명령
을 받았다.**

G1 행성 사람들은 산황산, 그 초록불빛을 지켜내도록 싸울 생각
이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이야기

강희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소고치는 미리암 Miriam the prophetess | Anselm Feuerbach (1829~1880)

리더십을 다시 생각하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는 불행을 벗어나게 할 메시아를 고대한다. 마치 '고도(Godot)'를 기다리는 일처럼 새롭고 더 나은 리더를 갈망한다. 삶의 성장과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공동의 목적, 혹은 공동의 선을 위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최근 여성혐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성이 리더

가 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 왜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까? 여성들에게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구약성서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리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선지자이다.

예언자 미리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을 이끈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대표적인 리더들이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예언자(창세기 15장 20절)라고 기록된 것처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시대와 상황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광야의 생활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몹시 힘들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 목마름으로 힘들었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먹을 것은 없었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때 예언자 미리암의 리더십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세지가 되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면 미리암이 “주를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고 선창할 때에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를 따랐다고 기록되었다. 고난가운데 있더라도 입을 열어 우리를 이끌어낸 아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암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라진 미리암


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까지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어찌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지속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광야에서 가고 서기를 반복하면서 명령하는 전체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모세는 백성들의 광야생활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 공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른바 구스여인을 취하여 사람들

의 비판을 받는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모세의 강력한 권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였다. 또 리더의 역할은 하나의 ‘가족(family)’처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여기는 리더십을 지닌 자였기에 모세의 권한 앞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미리암의 비판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결국 미리암에게 통보된 결과는 악성피부병이었다. 이 사건 이후 ‘예언자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모세오경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 때에 행군하지 않았다. 미리암이 돌아오고 나서 행군하였다는 것(민수기 15장 15절)은 미리암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리더였었가를 추측할 수 있다.

영생하는 여성 리더 미리암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어디서든 항상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 예언자 미리암에 관한 기록은 단지 여성들의 리더십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역사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왔고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의 돌보심을 기록한 성서는 감추인 보배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였다. 여성과 남성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미리암의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성서를 통해 보여주셨다.

미리암의 리더십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영생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가는 세계, 점점 더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고립되어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보듬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성서에서 발견한 우리는 행운아이다. 여성 리더십의 소유자 미리암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변혁을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온 나의 제2의 고향

문정인

상담소 자원활동가



자원상담가 활동모임(왼쪽첫번째)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되어준 가정 폭력 상담원 교육...

그 시작은 2012년 2월 우연히 지역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뭔가에 끌리듯 등록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루하루 받으면서 나는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다.

100 시간의 교육 후 상담이라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어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민우회 성폭력 상담원 100시간도 수료했고 그 후 청예단 폭력에 방강사, 양평원 기초강사과정을 거치면서 고양YWCA 가족사랑 상담소 소속 폭력 예방강사로 3년 정도 활동하며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방교육 수업을 했었다.


그 후 고양 교육청 소속 학생상담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집단상담 수업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예방강사 활동을 직장 생활과 병행 하면서 했던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적 육체적 소모를 느끼게 되면서 활동을 접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는 직장생활에만 충실을 다했다. 8년여

를 근무하던 직장을 작년 10월에 사직하면서 갑자기 공허해진 마음을 견잡을 수 없을 때 예전 활동하던 고양 YWCA 가족사랑 상담소로 다시 돌아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밀려왔다.

상근 활동가인 동기 문희숙 선생님의 큰 지지에 힘입어 다시 문을 두드릴 용기를 가졌고 이금순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복돋움 스터디 모임을 통해 다시 발견되는 나를 찾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로울 수가 없다. 아울러 영광스럽게도 14년간 지속되어 오는 인형극 수업에 참가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 열심히 활동 하고 있다.

인형극 수업은 아이들이 좋아 하고 친숙한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폭력에 대한 내용을 극으로 다루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존 폭력예방 강사 수업 형태와는 달라 또 다른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일깨워준 제2의 고향에서

이주편안하게 눕고, 뒹굴고, 느끼고, 즐기고, 싶다... 

사이버 명예훼손

김영은

선행정사무소 행정사



안녕하세요, YWCA회원 여러분
이번 호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SNS를 중심으로 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유명한 커뮤니티 카페 몇 군데에 가입하여 활동중인데요 간혹 이러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수 경험하게 됩니다. 일례로, 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위생상태나 서비스 질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낀 고객이 지역 맘카페 등에 업체명을 고스란히 노출시켜 불만사항을 그대로 적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의 특성상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다수의 댓글이 기록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마녀사냥식으로 파렴치한 업소로 몰고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지역 커뮤니티에 적시된 글로 인하여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울 만큼의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형사고소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 1)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공공연하게 적시되어야 하며 (사실인 경우에도 본 죄 성립)
- 2)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어느 업체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 3)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1:1 문의게시판이나 비밀게시판의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죄가 성립되는 경우라 해도, 소비자가 기재한 이용후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다른 이용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을 특정하여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만사항을 적시한 경우라면, 법적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특정 업체, 특정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 YWCA 30주년 기념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동양의 카푸칠리'
깊은 울림으로 감동을 전하는 목소리

바리톤 김주택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Tenor 이재원 Tenor 경세현 Bariton 이상훈 Piano 강준민

2019. 6. 13. [목] 8:00pm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공연예매 ☎ 고양문화재단 1577-7766
☎ 인터파크 1544-1555
공연문의 고양YWCA 031-919-4040
입장연령 만7세 이상
주최·주관 고양YWCA 후원 고양신문
입장권 VVIP석 77,000원, VIP석 55,000원, R석 33,000원, S석 22,000원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달려온 고양YWCA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임형주와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음악회등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특별히 올해에는 팬텀싱어에서 미라클라스티모로 활약한 동양의 카푸칠리라 불리는 바리톤 김주택을 초청하여 나눔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음악회를 통하여 지역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고양YWCA를 사

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교감하는 문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6월 13일 저녁8시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깊은 울림으로 감동을 전하는 목소리를 가진 김주택. 그와 함께 남성4중창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귀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진의연

나눔음악회 위원장

키다리(키우자 Y다운 리더)학교



✦ 2019년 4월 6일 고양YWCA 키다리학교 '스포츠타이트 투 라돈'이 개강하였다. 2019년 키다리학교는 총 27명의 중·고등 학생으로 구성되어 고양시 내 학교 및 청소년이용시설(PC방, 노래방, 만화카페 등)의 라돈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 지난 4월 10일(수) 이사, 위원, 직원 25명이 참석하여 회원증 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최정애 위원장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박동순(안양Y)사무총장의 회원증모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과 고양Y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다. 또한 운동의 목적 및 개인별 위원회별 목표에 대해 공유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증모운동 기간은 2019. 4.10~5.29일까지 50일간이며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이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고용증진의 기회를 주고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1(월)~3월28일(목) 1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38명의 교육생과 4월1일(월)~4월18(목) 2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26명의 아이돌보미 교육생이 배출되었다.

도시&여성&안전 고양 2019 프로젝트



✦ 고양YWCA는 고양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4/17(수)-10/31(목) 고양시민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2회 '도시&여성&안전 고양 2019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크게 발생하는 성별격차에 기반하여 여성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분야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여 안전조례·도시공간·고양시 여성안심사업·재난대피시설 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성인지 관점의 안전정책을 생산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직원워크숍 ‘그대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 고양YWCA는 4/19(금)-20(토) 직원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크라운 해태연수원에서 직원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콜라주를 활용한 조별토크, 성인지 관점으로 미디어 읽기 강의, 공동체 놀이, 일영 허브랜드 방문으로 공동체이식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탈핵캠페인



✦ 고양YWCA는 3/29(금)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엽역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탈핵선언문을 낭독해서 미세먼지의 문제를 탈원전 정책으로 환원하려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캠페인



✦ 고양YWCA는 4/24(수)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민의 생존권보호와 도심 숲 및 고양시민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산황동 골프장 건설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반대하는 시민 415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시에 전달하였다.

Y가족이야기

고양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입사 우경남 간사 (2019. 5.13)

퇴사 이지현 노무사 (2019. 5.14)

여성의 쉼터

입사 송미숙 상담원 (2019. 4. 1)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사 이현주(가족지원팀) (2019. 4. 1) • 박현정(가족지원팀) (2019. 5. 15)

결혼 이선아 건강가정사 (2019. 6. 22)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입사 박기원 교사 (2019. 3. 1)

정년퇴임 김선자 조리사 (2019. 6. 30)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입사 전우선 방과후교사 (2019. 5. 1) 퇴사 문소정 방과후교사 (2019. 4. 30)

고양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고양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일산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사회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1시간 동안 간단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보드게임을 통하여 간접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며 연차, 퇴직금, 연장수당 등 실제 노동법 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하여 법권리의 의식을 강화하고, 노동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특성학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다양한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젠더 아카데미]



지난 5월 13일(월) 2019년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인 '젠더아카데미'를 개강하였다. 섹슈얼리티와 젠더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한 여성 강의와 워크숍, 여성주의 작가와의 나눔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는 9월 24(화)까지 진행되며 그동안 상담과 예방교육 활동가들의 젠더의식 점검과 향상을 통해 폭력예방 근절과 젠더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 효(孝), 감사해 효(孝)]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어버이날 행사인 '사랑해 효 감사해 효' 행사가 지난 5월 7일(능곡센터), 5월 8일(복지관)에 걸쳐 진행됐다. 능곡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지사장 조용성)에서 생필품 선물셋트를 준비하여 능곡·행주동 저소득 가정 26곳에 전달했다. 경기서북권지사 조용성 지사장 이하 임직원들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정방문을 하였고 오

늘만큼은 어른신들 마음에 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 210명을 모시고 이윤승 시장의 축사와 함께 농협대학교(하해익 처장), 무궁화소상공인자원봉사자 협회(이추미 회장)의 대표가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말을 전달하였으며, 이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에서는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원아, 해냄이 프로젝트 참여자(장애청년), 주업2동문화센터 라인댄스팀이 꾸미는 흥겨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어울림한마당]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5월 25일(토) 화정중앙공원에서 모두가족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하였다. 공동체 문화, 지역주민 실천 가족문화의 주제로 다양한 고양시 유관기관과 함께 가족체험부스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복을 낚는 미꾸라지 체험, 부모체크리스트, 민속놀이 체험, 사랑나눔장터, 만다라 만들기, 세계전통의상 체험 등 16개의 다

양한 체험부스가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고양시 50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해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생각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2019년 2월~4월 후원자 명단

2019
02

강금화 강남정 강미영 강보석 강순자 강안나
 강영수 강영숙 강정희 강종두 강지선 강진미
 강철희 강현숙 견윤창 계수정 계은영 고경춘
 고선미 고옥이 고정숙 고현준 곽경자 곽미란 곽승현 곽창훈
 구분정 구인순 구자정 국순애 권경숙 권기용 권여정 권영균
 권용일 권현명 김갑훈 김경숙 김경숙 김경자 김경진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계환 김광영 김귀화 김규자 김기숙 김나연
 김동현 김명숙 김명정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애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 김미희 김민숙 김민주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분순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선하
 김설연 김성남 김성업 김성에 김세연 김세용 김소연 김소래
 김시화 김신실 김신예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경 김영도
 김영순 김옥남 김옥순 김옥자 김용근 김용진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이환 김인석 김인순
 김인식 김인에 김일순 김지환 김재욱 김재철 김정순 김정연
 김정원 김정윤 김정일 김정혜 김정호 김정훈 김정희 김종예
 김종일 김주현 김중기 김지선 김지연 김진아 김진호 김찬실
 김채환 김춘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원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행미 김항순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순 김형재 김형진 김혜경 김혜련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휴희 김희정 김희조 나애란 나윤옥 나종화 나현미 남궁성
 남궁경 노미화 노 진 도명옥 동방현주 류순애 마양석 마양석
 명연옥 모지영 문복희 문정인 문정자 문종미 문화경 문화숙
 민경숙 민은신 민혜경 민혜진 박경선 박광애 박귀영 박금련
 박금수 박금순 박금화 박금희 박기복 박남순 박범용 박병준
 박상근 박상희 박서정 박선영 박소영 박수지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순화 박승미 박승희 박양숙 박영신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경 박은주 박인숙 박인실 박점례 박정구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종민 박종숙 박주경 박주희 박준희 박지현
 박진우 박진찬 박진현 박혜동 박혜숙 박현경 박홍규 반정인
 반준우 방지연 방현숙 배명숙 배민희 배서현 배승희 배정연
 백은숙 백형자 백희정 서동철 서순이 서순자 서영호 서옥경
 서춘미 석병준 석영근 석은주 석진호 선유진 성경자 성곡숙
 생하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혜원 송영미 송이섭 송인자
 송재울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욱 신두호 신문식 신선우
 신선혜 신승철 신영란 신은심 신재희 심석보 심수연 심하진
 심형향 심홍순 안동숙 안명숙 안미숙 안미숙 안석민 안인숙
 안재홍 안진희 안현숙 양원태 양인순 오기백 오다혜 오성현
 오수경 오수자 오수정 오수현 오애자 오우영 오종택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왕애리 원정환 유경옥 유미영 유보라 유세아
 유순자 유용상 유철훈 유효경 윤길용 윤덕필 윤문식 윤병선
 윤선주 윤소연 윤영균 윤영옥 윤정국 윤정숙 윤주영 윤준구
 윤혁진 윤희도 이강석 이강욱 이경혜 이경희 이광수 이금수
 이대성 이동윤 이동호 이두은 이명숙 이명윤 이명화 이명화
 이미순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진 이미화 이민수 이민정

2019
03

강금화 강남정 강미영 강보석 강순자 강안나
 강영수 강영숙 강정희 강종두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견윤창 계수정 계은영 고경춘 고선미
 고옥이 고정숙 고태준 고현준 곽경자 곽미란 곽승현 곽창훈
 구분정 구인순 구자정 국순애 권경숙 권기용 권수미 권여정
 권영균 권용일 권현명 김갑훈 김경숙 김경숙 김경자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계환 김광영 김귀화 김규자 김근우 김기숙
 김나연 김동현 김명숙 김명정 김명화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애 김미애 김미자 김미희 김민숙 김민주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분순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설연 김성남 김성업 김성에 김세연 김세용 김소연 김소래
 김시화 김신실 김신예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경 김연수
 김영순 김옥남 김옥순 김옥자 김용근 김용진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이환 김인석 김인순
 김인식 김인에 김일순 김지환 김재욱 김재철 김정순 김정연
 김정원 김정윤 김정일 김정혜 김정호 김정훈 김정희 김종예
 김종일 김주현 김중기 김지선 김지연 김진아 김진호 김찬실
 김채환 김춘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원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행미 김항순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순 김형재 김형진 김혜경 김혜련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휴희 김희정 김희조 나애란 나윤옥 나종화 나현미 남궁성
 남궁경 노미화 노 진 도명옥 동방현주 류순애 마양석 마양석
 명연옥 모지영 문복희 문정인 문정자 문종미 문화경 문화숙
 민경숙 민은신 민혜경 민혜진 박경선 박광애 박귀영 박금련
 박금수 박금순 박금화 박금희 박기복 박남순 박범용 박병준
 박상근 박상희 박서정 박선영 박소영 박수지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순화 박승미 박승희 박양숙 박영신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경 박은주 박인숙 박인실 박점례 박정구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종민 박종숙 박주경 박주희 박준희 박지현
 박진우 박진찬 박진현 박혜동 박혜숙 박현경 박홍규 반정인
 반준우 방지연 방현숙 배명숙 배민희 배서현 배승희 배정연
 백은숙 백형자 백희정 서동철 서순이 서순자 서영호 서옥경
 서춘미 석병준 석영근 석은주 석진호 선유진 성경자 성곡숙
 생하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혜원 송영미 송이섭 송인자
 송재울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욱 신두호 신문식 신선우
 신선혜 신승철 신영란 신은심 신재희 심석보 심수연 심하진
 심형향 심홍순 안동숙 안명숙 안미숙 안미숙 안석민 안인숙
 안재홍 안진희 안현숙 양원태 양인순 오기백 오다혜 오성현
 오수경 오수자 오수정 오수현 오애자 오우영 오종택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왕애리 원정환 유경옥 유미영 유보라 유세아
 유순자 유용상 유철훈 유효경 윤길용 윤덕필 윤문식 윤병선
 윤선주 윤소연 윤영균 윤영옥 윤정국 윤정숙 윤주영 윤준구
 윤혁진 윤희도 이강석 이강욱 이경혜 이경희 이광수 이금수
 이대성 이동윤 이동호 이두은 이명숙 이명윤 이명화 이명화
 이미순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진 이미화 이민수 이민정
 이백채 이복례 이복숙 이봉운 이상수 이상욱 이상희 이선순
 이선아 이상문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숙자 이슬미
 이슬아 이슬환 이신애 이영남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애 이영옥 이영주 이영철 이영표 이영희 이우열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서 이윤순 이윤식 이윤주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희환 이인숙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화 이종열 이주기 이주연 이주연 이준호 이지선 이지옥
 이지은 이진경 이진희 이춘자 이혁재 이혁호 이현지 이혜경
 이혜연 이혜영 이홍근 이화용 이희재 임미란 임상원 임소라
 임수경 임수희 임숙영 임영희 임은선 임은미 임재경 임재경
 임현서 임홍선 장길주 장 미 장선심 장순일 장여백 장여운
 장영진 장인경 장정옥 장화진 전영숙 전명순 전민자 전선윤
 전성원 전성혜 전순택 전승희 전영철 전옥희 전은국 전정옥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혜림 정경례 정경진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동주 정득화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미자
 정상화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소현 정수아 정여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환 정용환 정원재 정유정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재은 정태수 정필재 정형신 정호숙 조경오 조미경
 조민서 조성환 조안순 조애진 조영근 조용준 조윤성 조은경
 조은서 조은영 조은자 조지혜 조희진 주선희 주수연 (주)새누
 (주)에스트론 (주)한국텔레콤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태을 최경숙 최광성 최동혁 최문희 최민기 최상영
 최선영 최선호 최성연 최성원 최성진 최숙정 최순섭 최영민
 최인숙 최자현 최정원 최준순 최지우 최지현 최진옥
 최향숙 최현아 하미희 하연화 하영리 한경희 한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성옥
 한숙원 한정수 한주성 한희철 함윤수 함윤희 허공근 현영구
 호광여 홍기표 홍대식 홍성진 홍성철 홍순애 홍영심 홍우정
 홍윤옥 홍윤주 홍찬영 홍현숙 홍현숙 홍효기 홍효식 황경숙
 황상희 황소영 황이영 황지애 황태성 황혜영 황혜영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선순 이선아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수자 이승미 이승아 이승환 이신애 이영남 이영미 이영수 이영심 이영애 이영옥 이영주 이영철 이영표 이영희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서 이윤승 이윤식 이윤주 이은선 이은선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화 이종래 이종열 이주기 이주연 이주연 이준호 이자선 이지옥 이지은 이진경 이진희 이희재 이혁호 이현지 이혜경 이혜연 이혜영 이홍근 이화용 이희재 임미란 임상원 임소라 임수경 임수희 임숙영 임영희 임은선 임은이 임재경 임재경 임현서 임홍선 장길수 장 미 장선식 장순일 장여백 장여운 장영진 장인경 장혜고 장희진 전경숙 전명순 전민자 전선운 전성원 전성혜 전순택 전승희 전영철 전옥희 전은국 전정옥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혜림 정경례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동기 정동진 정동희 정득화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미자 정상화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아 정어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우환 정원재 정유정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재은 정태숙 정필재 정형성 정효숙 조미경 조민서 조민순 조애진 조영근 조용준 조윤성 조은경 조은서 조은영 조은자 조희진 주수연 (주)새우 (주)에스트론 (주)한국엘테크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태을 최경숙 최귀순 최동혁 최문희 최미점 최민기 최상영 최선영 최선호 최성연 최성원 최성진 최숙철 최순섭 최영림 최인숙 최자현 최정식 최정열 최중순 최준식 최지우 최지현 최항숙 최현아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경희 한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성희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한주섭 한희철 함윤수 함윤희 허공근 허광어 흥기표 흥대식 흥성진 흥성철 흥순애 흥영심 흥우정 흥윤주 흥진영 흥현숙 흥현숙 흥효기 흥효식 황경숙 황소영 황이영 황영은 황지에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2019
04

강경화 강남정 강보석 강순자 강안나 강영수 강정희 강종두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권윤창 계수정 계은영 고경춘 고선미 고옥이 고정숙 고태준 고현준 광경자 광미란 광승현 광창호 구분정 구인순 구자정 국순애 권경숙 권기용 권수미 권여정 권영근 권용일 권현명 김갑훈 김경숙 김경숙 김경자 김경진 김경화 김경희 김명정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애 김미애 김미자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희 김보현 김본순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설연 김성남 김성영 김성애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세용 김순연 김순래 김시화 김신실 김신애 김아람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경 김영도 김영순 김옥남 김옥순 김옥자 김용근 김용진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이환 김인석 김인숙 김인식 김인에 김일순 김지환 김재숙 김재철 김정순 김정연 김정윤 김정혜 김정호 김정훈 김중애 김종일 김주현 김중기 김지선 김지연 김진아 김진호 김찬실 김채환 김훈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학준 김행미 김항순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수 김형재 김형진 김혜경 김혜연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휴희 김희정 김희호 노애란 나윤옥 나종하 남궁성 남궁혜경 노미화 노 진 도명옥 동방현주 마양석 명연옥 모지영 문복희 문정인 문정자 문종미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민혜경 민혜진 박경선 박광애 박귀영 박금련 박금화 박금희 박기복 박남순 박범용 박병준 박상근 박상호 박상호 박상화 박서정 박선영 박소영 박수지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순화 박승미 박승희 박양숙 박영진 박용준 박윤희 박은경 박은주 박인숙 박인실 박점래 박정구 박정모 박정수 박정숙 박종민 박중숙 박주경 박상호 박준희 박지현 박진우 박진찬 박해동 박해숙 박현경 박홍규 방진연 반준우 방지연 방현숙 배맹숙 배민희 배서현 배승희 배정연 백은숙 백형자 백희정 서동철 서순이 서순자 서영민 서영호 서옥경 석영근 석은주 석진호 선유진 성경자 성곡숙 성하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혜원 송영미 송영애 송이선 송인자 송재용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욱 신두호 신문식 신선우 신선에 신승철 신영란 신은신 신재희 심석보 심수연 심하진 심형창 심홍순 안동숙 안명숙 안미숙 안미숙 안석민 안인숙 안재홍 안진희 안현숙 양나는 양원태 양윤선 양인순 오기백 오디혜 오수경 오수자 오수정 오수현 오애자 오우영 오종택 오창훈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왕애리 원정환 유경옥 유미영 유보라 유세아리 유순자 유철훈 유효경 윤길용 윤덕필 윤문식 윤병선 윤순주 윤순연 윤영균 윤영옥 윤정국 윤정숙 윤주영 윤준구 윤혁진 윤희도 이강석 이강옥 이경애 이경혜 이광수 이금수 이대성 이대윤 이동호 이두은 이명윤 이명화 이명화 이미순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진 이미화 이민수 이민정 이백채 이복례 이봉은 이상록 이상희 이선순 이선아 이상문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숙자 이승남 이신애 이영남 이영미 이영수 이영심 이영애 이영옥 이영주 이영철 이영표 이영희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서 이윤승 이윤식 이윤주 이은선 이은선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화 이종래 이종열 이주기 이주연 이주연 이준호 이자선 이지옥 이지은 이진경 이진희 이희재 이혁호 이현지 이혜경 이혜연 이혜영 이홍근 이화용 이희재 임미란 임상원 임소라 임수경 임수희 임숙영 임영희 임은선 임은이 임재경 임재경 임현서 임홍선 장길수 장 미 장선식 장순일 장여백 장여운 장영진 장인경 장혜고 장희진 전경숙 전명순 전민자 전선운 전성원 전성혜 전순택 전승희 전영철 전옥희 전은국 전정옥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혜림 정경례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동기 정동진 정동희 정득화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미자 정상화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아 정어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우환 정원재 정유정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재은 정태숙 정필재 정형성 정효숙 조미경 조민서 조민순 조애진 조영근 조용준 조윤성 조은경 조은서 조은영 조은자 조희진 주수연 (주)새우 (주)에스트론 (주)한국엘테크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태을 최경숙 최귀순 최동혁 최문희 최미점 최민기 최상영 최선영 최선호 최성연 최성원 최성진 최숙철 최순섭 최영림 최인숙 최자현 최정식 최정열 최중순 최준식 최지우 최지현 최항숙 최현아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경희 한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성희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한주섭 한희철 함윤수 함윤희 허공근 허광어 흥기표 흥대식 흥성진 흥성철 흥순애 흥영심 흥우정 흥윤주 흥진영 흥현숙 흥현숙 흥효기 흥효식 황경숙 황소영 황이영 황영은 황지에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평생
후원

김주영 김중기 김춘수 김형순 김해림 박연희 박진남 최성현

특별
후원

김춘애 문지현 승리교회 예수승리교회 윤정에 한두레자치회



고양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1급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회복지사가 찾아갑니다.

- 신체활동 지원**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이용료

- ①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서비스비용의 15%), 국가부담(서비스비용의 15%), 1등급~4등급별 차등지원
- ② 국가유공자 등 본인부담금(서비스비용의 7.5%)
- ③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총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15%	218,460	194,190	186,100	171,360

고양YWCA 가사도우미

● 부족한 일손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시간 평일 오전 9:30 ~ 오후 5:30 (최소한 1달 전에 예약)

구분	평수	금액	추가요금
반나절 09:00~13:00 14:00~18:00	~39평	48,000	① 1만원 추가의 경우 • 단회성(겨우포함) • 반찬서비스 • 시간추가(1시간만가능) • 음식추가 ·반려동물 ② 일요일,공휴일 1.5배
	40~59평	53,000	
	60평~	60,000	
종일(8시간) 09:00~17:00 (중식제공)	~39평	80,000	• 중식별도제공(일7천원) • 80평 이상은 협의 후 • 일요일,공휴일 1.5배
	40~59평	90,000	
	60평~	100,000	

● 가사도우미 교육

교육시간 매월 셋째주 목요일 09:30~12:00

문의전화 ☎ 031)919-4040

고양YWCA 생활방사능 라돈 측정기 '라돈 아이' 대여서비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침묵의 살인자 생활방사능 라돈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아직 국내에는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문제”

- 서울대의과대학강건욱 교수 -



NET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국산 제품

Smart Radon Detector RD200 - RadonEye
**스마트라돈 가스 감지기
라돈 아이**



고양YWCA는 고양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돈측정기 '라돈아이'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 2박 3일

대여금액 5,000원 + 보증금 50,000원 (라돈아이 반납 후 보증금 반환)

대여방법 고양YWCA 전화 상담 후 기관 방문하여 수령

전 화 031-919-4040 고양YWCA

고양YWCA합창단 **신입 단원모집**

고양시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합창단 고양YWCA합창단은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단원들의 소질 계발과 교양 증진을
목표로 만들어 졌으며 노래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언제나 열정 가득한 새 단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oyangywcachoir> **후원계좌** 농협 351-0904-8959-53 (예금주:고양YWCA 합창단)

모집인원 각 파트별 약간명

연 습 일 매주 화요일 (1000~12:30)

자 격 만 55세이하의 여성

연습장소 대화동 농협하나로마트 2층 이벤트홀

오 디 션 자유곡(파트조정을 위한음색확인차)

문 의 010-5243-2140

특별한 방학을 원한다면! 캐슬하라! 특별한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 한곳에

원캐슬

검색

키즈 케어 센터

ONECASTLE

방학특강 OPEN!

7월 19일 이전 등록 시 30%할인 혜택



원캐슬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 차별화된 스포츠 교육과
글로벌 리더를 위한 창의융합교육
- 코딩드론축구 · 스케이트
- 코딩 · 브레인스포츠
- 창의과학 · 4D프레임

모집대상 : 유치부, 초등부

운영시간 : 10시 ~ 20시

모 집 : 주2회 / 주3회 / 주5회 교육반

문 의 : 원마운트 스포츠 클럽 1층 원캐슬 상담실

1588-0319 / www.onecastle.co.kr